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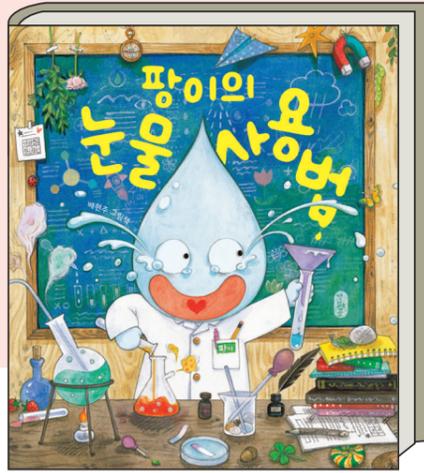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3  
 전화 02-332-2672-3 팩스 02-338-2672  
 홈페이지 www.bearbooks.co.kr  
 SNS Instagram @bearbooks\_publishers

[작품] 팡이의 눈물 사용법 책놀이책

책읽는곰 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 책 소개



### 팡이의 눈물 사용법

배현주 글 · 그림 | 책읽는곰 펴냄

팡이는 감나무 집 코기 씨네 귀염둥이 막내예요.  
 엄마도 아빠도 형도 팡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지요.  
 그런 팡이에게도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제 성에 안 차는 일이 있으면 울음부터 터트리는데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 형까지 모두 나서서  
 달래고 어르고 보듬어 줘야 겨우 울음을 그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팡이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맨날 울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었더니,  
 먹기 싫은 당근을 안 먹어도 됐어요.  
 하기 싫은 빗질을 안 해도 됐어요.  
 형이 아끼는 옷도 빌려 입을 수 있었지요.  
 앙양 울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앙양 울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 배현주 작가와 작품을 소개합니다

배현주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과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첫 그림책 《설빔》으로 제27회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았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설빔》, 《내가 안아 줄게》, 《팡이의 눈물 사용법》이 있으며, 그린 책으로 《원숭이 오누이》, 《나는 내가 좋아요》, 《숲에서 만난 이야기》, 《난 정말 행복해》, 《똑똑 누구야 누구?》 등이 있습니다.



### 숲에서 만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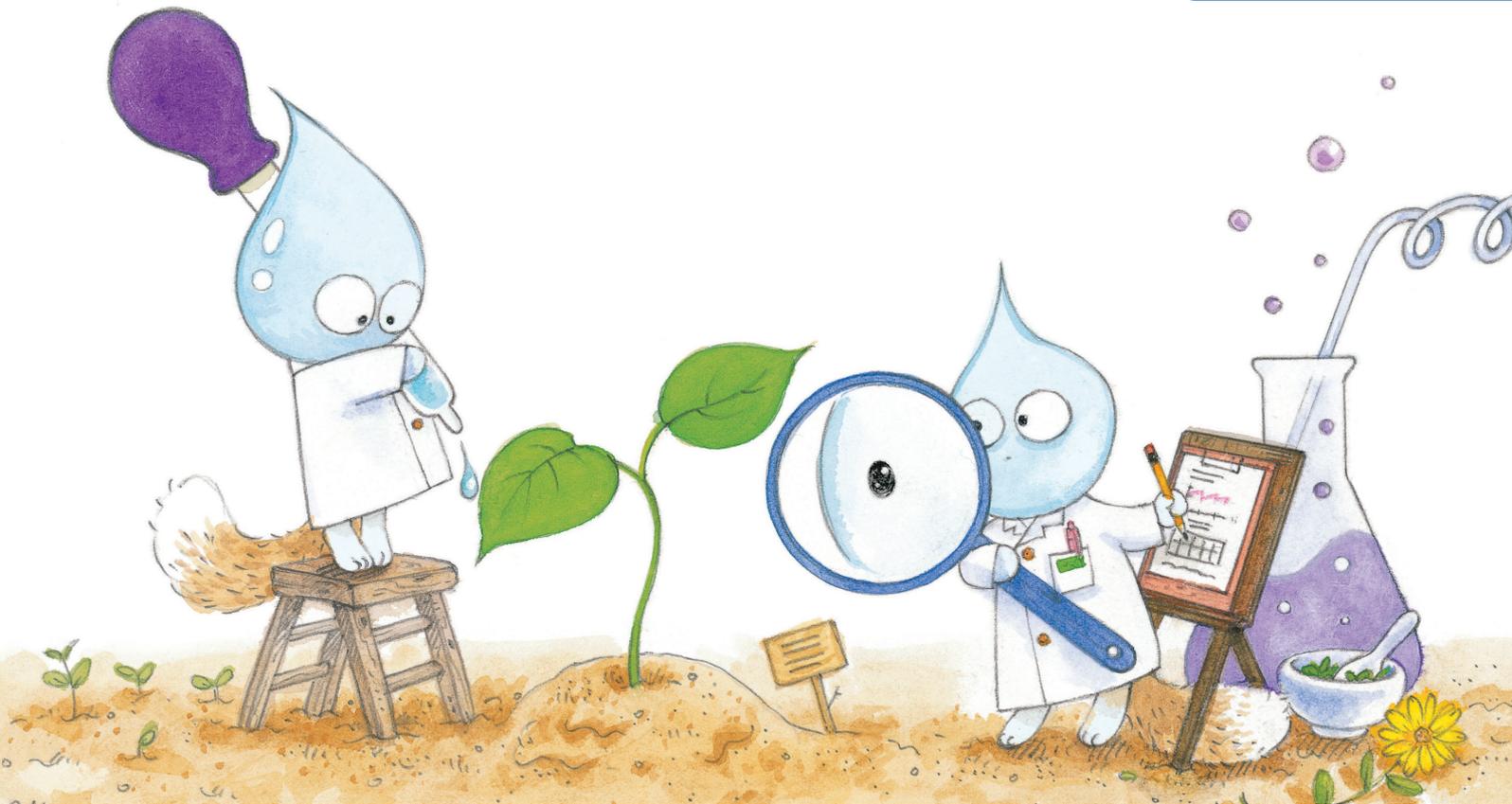
채인선 글 | 배현주 그림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읽어 주기 좋은 책

### 책 읽는 어린이의 마음속 풍경을 담은 그림책 책장을 넘기는 사이에 피어나는 생각과 상상!

예나는 새 그림책을 가지고 숲으로 갑니다. 동물이 나오는 그림책이라 동물들에게 읽어 주려고요. 예나가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으니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림책 속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도 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지요? 그림책 속 곰이 다람쥐의 뒷덜미를 덩석 잡았습니다. 숲속 동물들도 따라 할 기세입니다. 예나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 그림책을 보기 전에

---

1.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2. 표지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3. 여러분은 하기 싫은 일이 있나요?
4. 여러분은 언제 울고 싶나요? 요즘 가장 크게 울었던 때를 이야기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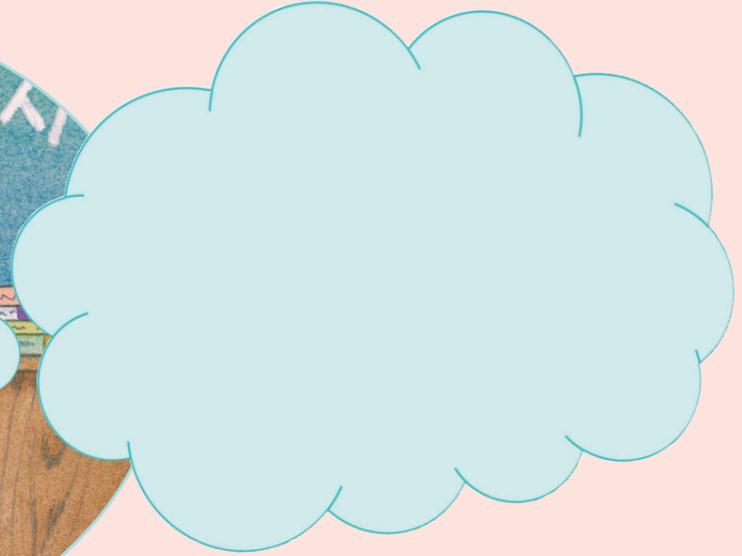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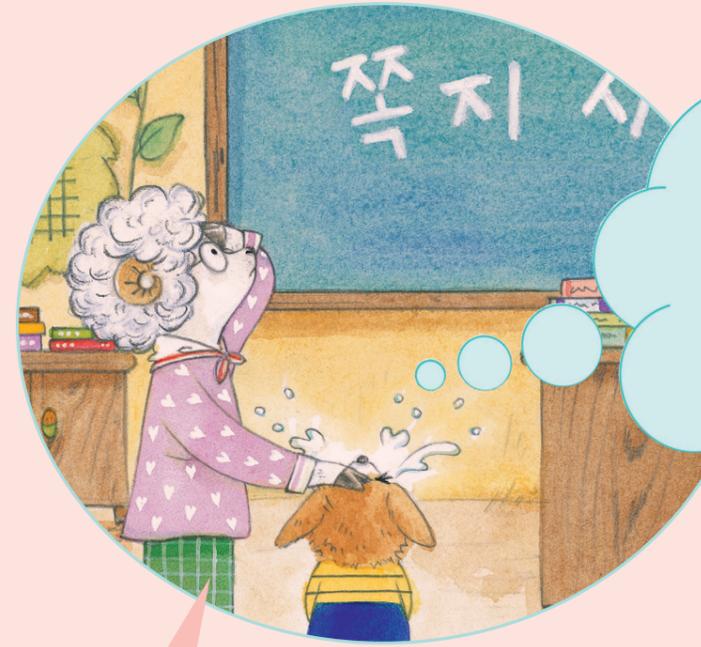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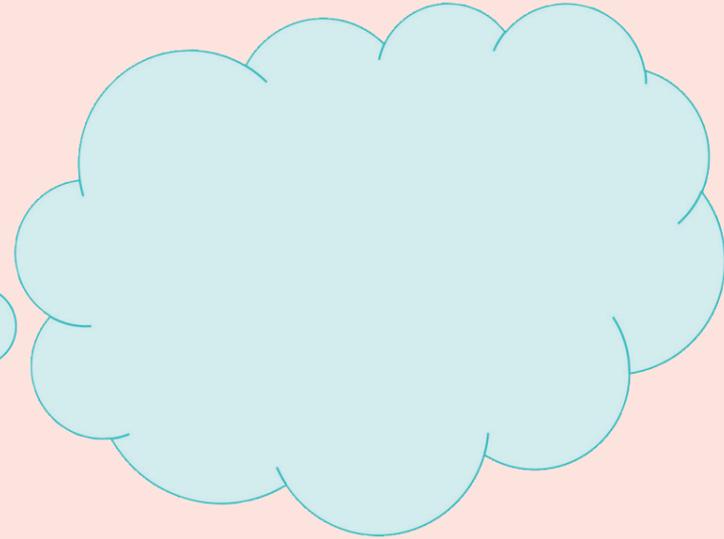
### 그림책을 보고 나서

---

1. 팡이가 맨날 울기로 마음먹은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2. 팡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3. 팡이는 구렁이 아줌마 가족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4. 집에 돌아온 팡이가 울지 않고 잠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5. 팡이처럼 여러분도 하기 싫은 일을 피하려고 꾀를 냈던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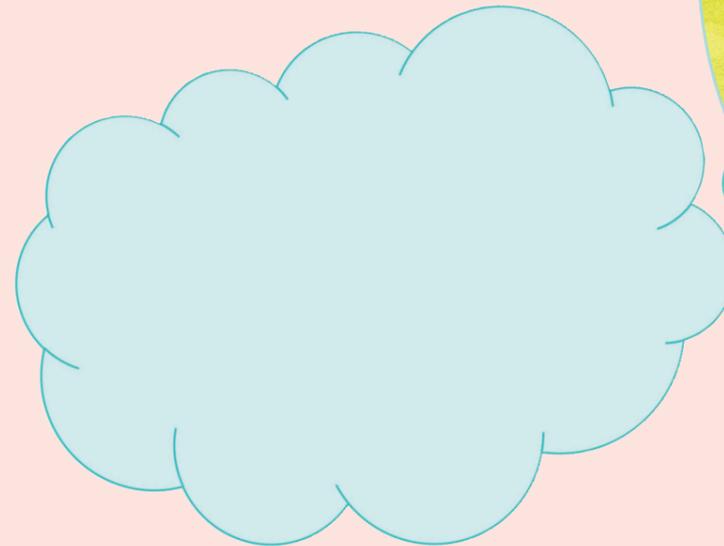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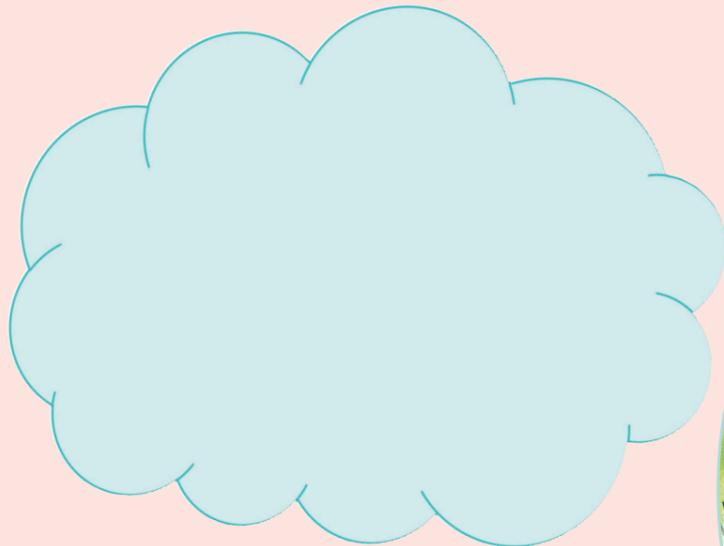
여러분이 팡이라면 아래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래 생각 풍선에 적어 볼까요?

팡이야,  
이제 그만 자자.



팡이야, 어디 아프니?  
오늘 쪽지 시험은  
못 보겠구나.

팡이야, 괜찮아?  
내가 가방 들어 줄까?



시험도 안 보고  
집에도 일찍 가니 신난다!

## 책놀이 2 팡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이 팡이의 가족, 친구, 선생님이라면 팡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래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다음 상황에서 팡이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말 주머니 속에서 팡이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골라 빈칸에 적어 볼까요?



갑자기 툭, 툭둑 어디선가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무시무시한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네 이놈! 너구나. 아침부터  
시끄럽게 울어 대던 놈이!”



구렁이 아줌마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팡이는 엄마 품에 안기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팡이의 기분은?

팡이의 기분은?

팡이의 기분은?

팡이의 기분은?

말 주머니

감동한

걱정스러운

고마운

괴로운

궁금한

기쁜

놀란

다행스러운

떨리는

무서운

미안한

부끄러운

불쌍한

불안한

불편한

뿌듯한

속상한

슬픈

신나는

안쓰러운

안타까운

우스운

재미있는

즐거운

짜증스러운

창피한

초조한

편안한

행복한

화난

책놀이 4 나의 눈물 사용법

여러분도 빵이처럼 하기 싫은 일이 있나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내가 정말 정말 하기 싫은 일은?

당근 먹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드는 기분은?(표정을 그려 넣어도 좋아요.)

괴로워요			



여러분은 언제 울고 싶나요? 아래 눈물방울 속에 하나씩 적어 볼까요?

<p>가장 친한 친구와 다뤘을 때</p>		

책놀이 5 나의 눈물 기록장

여러분이 실컷 울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슨 일로 울었는지 그림을 그려 볼까요?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drawing.

울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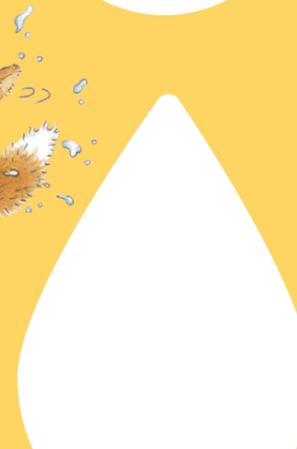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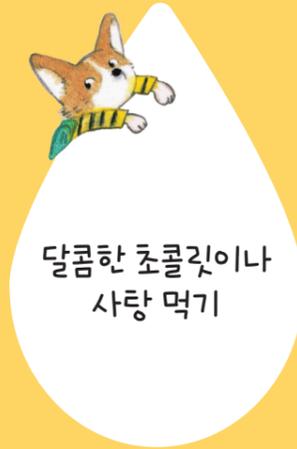
Horizontal empty box for writing.

그때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Horizontal empty box for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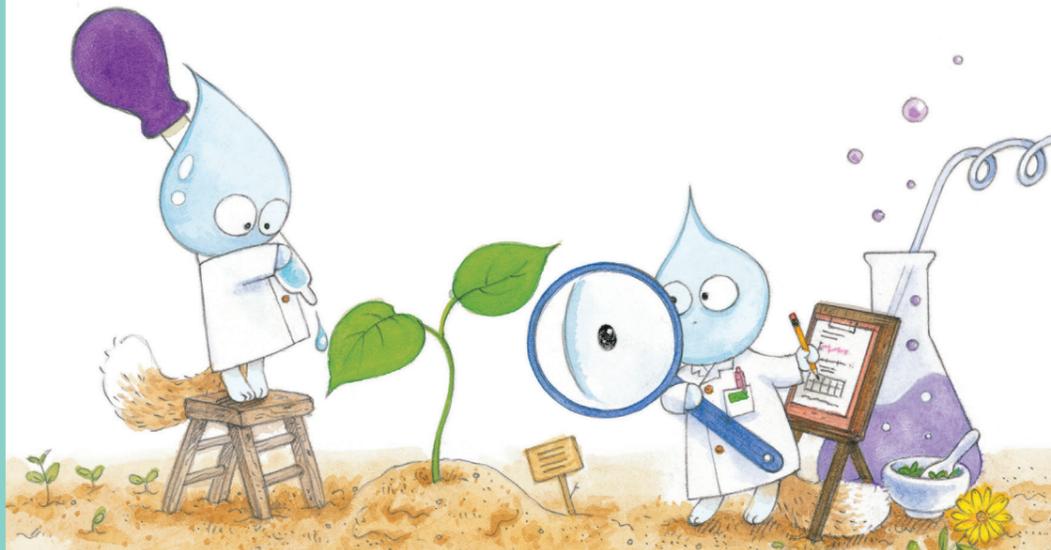
울고 싶을 때 어떤 일을 하면 울음을 참을 수 있나요?  
아래 눈물방울 속에 하나씩 적어 볼까요?



토닥토닥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눈물 처방전을 만들어 건네 볼까요?

### ‘눈물 뚝 처방전’ 사용법

1. 빵이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2. 왜 눈물이 나는지, 우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 보아요.
3.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요.  
(오른쪽 ‘토닥토닥 약’ 중에서 골라도 좋고, 여러분이 직접 적어도 좋아요.)
4. ‘토닥토닥 약’을 뒷장 처방전에 붙여요.
5. 처방전의 나머지 빈칸도 적어 넣어요.
6. 친구에게 처방전을 건네요. 환한 웃음과 함께요.  
(눈물이 날 때면 스스로에게 주는 처방전을 만들어도 좋아요.)



## + 토닥토닥 약



괜찮을 거야.

잘하고 있어.

네 생각이 옳아.

용기를 내.

응원할게.

난 네 편이야.

힘들었겠구나.

누구나 실수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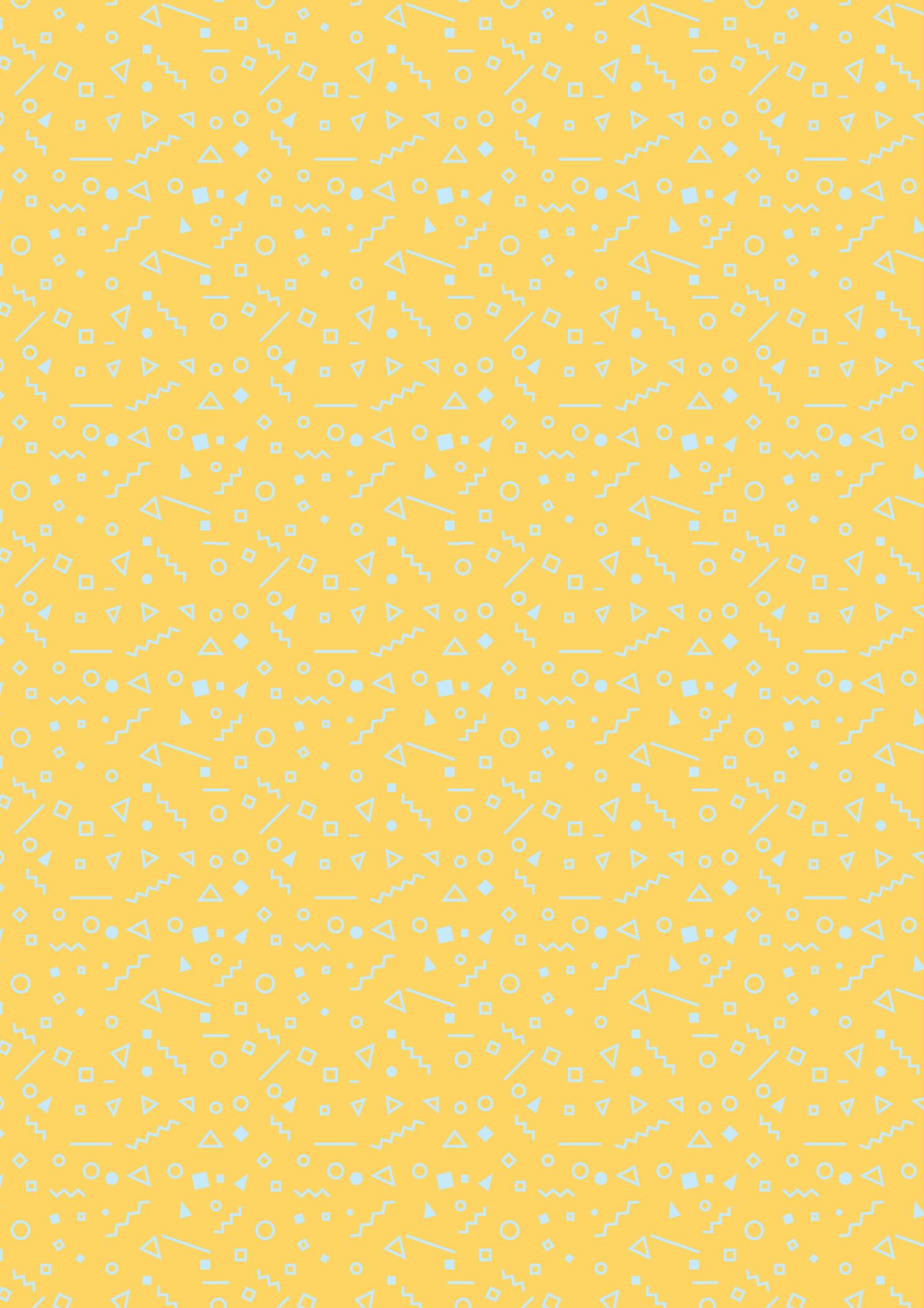
그럴 수 있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참 좋아.

Blank dashed box for writing a message.



# 눈물 톡 처방전

\_\_\_\_\_ 님

( 나이 \_\_\_\_\_ 세, 남·여 )

## 용법

\_\_\_\_\_ 1일 회 일분

※ 눈물이 날 때마다 아래 '톡톡약'을 소리 내어 말하기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약사 \_\_\_\_\_

